

투쟁속보

전국언론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DIA WORKERS
인천일보 지부
www.incheonnojo.org

2004년 8월 27일

| 발행인 정찬홍 | 편집인 김진국 · 편집위원 김형태 정인숙 노형래 김성중 |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 | 인천시 중구 향동4가 18-2 (전화:4520-282 팩스:763-8807) |



또다시 투쟁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나

노조, 생존권 사수 위한 단식, 식발투쟁, 1인시위 시작

인천일보 임금 협상이 황호수 사장과 교섭 간부들의 기만적인 태도로 지난 24일 끝내 결렬됐다.

이날 15시간동안 진행된 노동조합과 사측의 막판 임금 협상에서 회사는 약속을 반복하며 조합원들에게 또다시 굶주림을 강요했다.

황호수 사장 등 사측 간부진은 '1차 증자가 끝나는 11월까지 기다려 달라' 며 임

금 인상을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증자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황 사장이 '나도 이 회사 출신이다. 후배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이번 만큼은 노조에서 원하는 만큼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여지없이 깨뜨린 것이었다.

황 사장은 특히 지난달 19일 황호수 사장, 정찬홍 위원장, 김형태 부위원장, 유

병범 투쟁위원장, 남창섭 사무국장, 최승만 사무차장, 오승희 교육국장, 이주영 조합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임금인상안을 약속해 놓고도 이를 반복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 문서에 따르면 황 사장은 '노조가 제시한 600만원 인상안 수용하겠다. 또 7월 인상분까지 소급적용 하겠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그는 끝내 '신의' 과

‘명분’을 모두 잃는 벼랑끝의 길을 선택했다.

황 사장은 지리한 임단협 자리에서 경영적자를 근거로 396만원 인상분을 들고 나왔다. 이는 한달 33만원 인상분으로 신화수 전 사장이 약속한 30만원에서 3만원 오른 금액이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 비를 맞으며 식은 김밥 먹으면서 증,감자를 이끌어내고 언론개혁을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온 결과가 고작 3만원이라는 말인가?

이제 우리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눈물을 머금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왜 우리가 선배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는가. 왜 우리를 일에만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황 사장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나든지, 조합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든지 양자 택일을 해야 한다.

또 단체 교섭 내내 ‘경영적으로 인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기만적인 언행으로 일관한 간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황 사장을 비롯한 간부진들이 불명에 퇴진한 신 전 사장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황 사장을 비롯한 사측 경영진은 전직원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전직원 앞에서 사죄하라.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한편,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계속 임금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경우 임금 체불로 황 사장을 고발, 고소함은 물론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노동조합은 임금 교섭권을 중앙 언노조에 반납했으며 지난 24일부터 정찬홍 위원장의 단식농성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앞서 오후 2시 조합원 60여명이 참여한 ‘1차 임협 결렬 규탄 집회’를 갖고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 앞으로 투쟁구별 1인 시위, 연대 단식투쟁, 철야 투쟁 등으로 강도 높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6일 정찬홍 위원장의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각 부위원장들이 그 뒤를 이어 삭발 투쟁에 나설 계획이며 인천일보 노조를 지지하는 각 사회,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방침이다.

단식투쟁에 들어가며

조합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워온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신 전 사장과 그 하수인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태가 지금 황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의해 우리 눈 앞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11대 노조 출범 후 있었던 전 경영진과의 싸움, 비대위 구성 이후 진행됐던 자투쟁,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찬 비를 맞으며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갑작스레 나타나 인천일보 주주총회를 뒤집어 놓은 폭력배와 어용변호사를 물리쳐 온 그 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언론은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시 대표이사 체제기간중 실제로 돈을 벌고, 신문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그 험난하고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역경을 헤쳐온 것은 그 누구의 덕도 아닌 온전한 우리의 피땀과 희망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비대위 출범 후 틈 날 때마다 ‘자신있다’고 큰소리쳐 온 황 사장은 그동안 무엇을 해냈습니까.

그는 자신이 제시했던 증·감자 일정을 직원회의 때마다 반복했고, ‘알고보니 절차나 과정이 이렇더라’, ‘전 경영진

으로 인해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그리고 대표이사 피선 이후 그가 했던 약속들중 지켜진 것은 무엇이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모든 뒷감당은 누가 해 왔습니까.

황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능력을 감안할 때 조합원들의 투쟁과 희생이 없이 인천일보의 희망인 자본구조 개선과 경영실적 호전이 도대체 가망키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모두는 비전있는 지역 유력 일간지의 사장으로서는 ‘경인지역 최고대우’를 공개 약속한 황 사장의 말을 믿었습니다.

워낙 자신있게 해 온 이야기였고, ‘그래도 우리 모두의 선배’라는 인간적인 믿음은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황 사장은 우리에게 ‘내 성격이 원래 그래’라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고, 우리의 마지막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자신이 각서까지 써 사인했던 문서도, 바로 며칠 전 전 직원 앞에서 한 약속도 ‘황 사장의 성격’이 만들어낸 하나의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즉흥적으로 발언하고 이래저래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다 그도 안되면 대책없는 시간끌기로 일관하는 황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인천일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속을 수도, 참을 수도 없습니다.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황 사장과 경영진을 상대로 분연히 일어나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내야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직원들을 수없이 기만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조합원들의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황 사장과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기 이전에 책임을 진 집행부로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저는 단식투쟁에 들어 갑니다.

사측이 지금과 같은 사고방식과 협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투쟁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조합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단결하고 동참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는 값진 투쟁의 결실을 수확하고, 그 보람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랑스런 인천일보인들이 될 것입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위원장 정찬홍〉